

2023년 8월 13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9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8 월]



복음화 지향 :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9-11-13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화답송 시편 85(84),9-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9,1-5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복음 환호송 시편 130(129),5 참조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3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영성체 후 묵상

바람과 불이 지나간 뒤에 하느님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어 다가가시고,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물에 빠져 들지 않도록 세파에 당당하게 맞서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 청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용진 요셉 신부 ♣

예수님의 손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 곁에 머물며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맞바람을 맞으며 호수를 건너갑니다. 복음사가는 그 시대의 교회 모습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는 제자들의 배는 안팎으로 난관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의문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꿈틀대는 그때 상황을 빗대는 듯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때때로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멀리 계신 듯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관과 주님 부재의 체험. 이에 대한 복음서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곁에 계신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그분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베네딕토 16 세, 『복음서 주해』(Commenti ai Vangeli), 바티칸출판사, 279 면 참조).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 그분께서 다가오시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하여 주셨습니다(31 절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참례하는 미사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고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바로 그때, 그리고 살면서 겪는 많은 일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히브 10,38 참조).



| 연중 제 19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verse.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알레산드로 알로리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모 승천 대축일의 유래와 의미

8 월 15 일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공경하는 여러 축일 중 으뜸이라할 수 있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어서 한국교회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보성인으로서 우리 겨레와 교회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성모 마리아의 축일인 이날, 성모 승천 대축일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시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지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는 일찍이 초대 교회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례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5 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8 월 15 일에 성모의 죽음과 승천을 기념해 지낸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을 문헌상 그 기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후 당시 순교자나 성인들을 선종일에 기념하는 사상에 부응해 6 세기 말 「성모 안식 축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비잔틴 황제 마우리치우스(Mauricius, 582~602)가 동로마제국 전역에 이 축일을 도입하고 8 월 15 일을 국가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 축일이 7 세기에 서방 교회로 전해져 성모를 공경하는 축일로 널리 지내게 됐으며 축일명칭도 「성모 안식 축일」에서 「성모 승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적 기원을 지니고 있는 성모 승천 대축일은 1950 년 11 월 1 일 교황 비오 12 세가 「성모 승천」을 믿을교리로 선포한 이후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성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만한 전승과 구세사에 있어서 성모의 역할,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교회안에서 믿을교리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성모 승천은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느 모로든 하늘에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어 내세에 완성될 교회의 표상이 되시고 그 시작이 되시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빛나고 계신다』(교회헌장 68 항)고 밝히고 있으며 이처럼 성모님의 승천은 장차 우리도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표지로 다가옵니다. 교회는 2000 년 동안 성모 승천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평생동정이신 분, 원죄없이 잉태되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또다른 이유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 그분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에서, 하느님께 향하는 사랑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공동체 미사 : 2023 년 8 월 15 일 화요일 오후 7 시, 아란다 성당 (St Vincent de Paul Church)

2024 년 캔버라 한인성당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순례성지 및 시기] 이스라엘과 요르단, 2024 년 9 월 중 10 박 11 일
[주관사] 가톨릭여행사 [참가비] 1 인당 약 525 만원 (환율 따라 변동)
[신청기간] 2023 년 7 월 16 일(주일) ~ 2023 년 9 월 30 일(토)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 6 가정(12 명) 참가신청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개강] 2023 년 9 월 3 일 주일
[세례식] 2024 년 4 월 9 일(부활절)
[일시] 주일 오후 1 시 30 분 ~ 2 시 30 분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제 18 대 캔버라 한인회 신임회장 및 임원진 발대식

권묘순(소피아) 자매님께서 제 18 대 캔버라 한인회 회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인회 발전을 위해 애쓰실 신임 임원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면 8 월 17 일(목)까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대식 일시 및 장소] 8 월 21 일(월) 오후 6 시, 주호주한국대사관 [참석 문의] 권묘순 소피아 (0405 157 157)

2023 호주 한국 영화제 (Korean Film Festival in Australia) 안내

[기간 및 장소] 2023 년 9 월 1 일(금) ~ 3 일(일), 캔버라 Palace Electric Cinema (티켓 예매 <https://koffia.com.au>)



| 연중 제 19 주일 주간실천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㉑
친구, 가족, 동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㉒
하루 5회, 급제동과 급출발 하지 않기
→ 2.19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중주
14 강 아모스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남왕국 출신이었으나
북왕국에서 심판을 선고한 아모스는,
무엇 때문에 베델까지 가서
심판을 선고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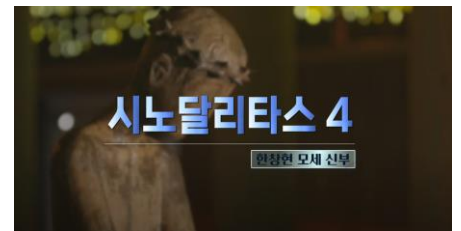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47 강]
고대 권력의 화룡정점

Q 성경 과외 해주는 신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사무엘기 6 부 | 2 사무 7-10 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노달리타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가톨릭 둘레 특강#65
한창현 모세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양성위원장

□ 미사 참례자수

7 월 30 일	성인 46 아이 20	8 월 6 일	성인 55 아이 24
----------	-------------	---------	-------------

□ 우리들의 정성 (8 월 5 일(토)~11 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정수	김천주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황병욱		
교무금 \$680 (14 가정) / 봉헌금 \$317.5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8 월 13 일 연중 제 19 주일	8 월 20 일 연중 제 20 주일
독서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예물봉헌	루카반	마르코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3 일) 루카반 → (20 일) 마르코반 → (27 일) 마태오반 → (9 월 3 일) 요한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셋째주 간식): (20 일-간식) 마태오반→(9 월 3 일-식사) 요한반

□ 미사서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8 월 13 일	329 미사시작	332 봉헌	498 예수여 기리리다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8 월 20 일	26 이끌어 주소서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63 생명의 성체여	49 용기장이

† 지난 8 월 10 일(목)에 선종하신 고 안경록 도미니코 형제님과 고인의 가족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왕케이티 울리아(루카반, 15 일) 자매님과 임채숙 마리아(요한반, 15 일) 자매님, 남궁울리 울리아나(초등, 17 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